

화순, 전국 최초 농어민 수당 120만원

100% 올라...구충곤 군수 “국가 정책화 필요”

인상분 반영 54억원 증액...4월 중 일괄 지급

화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연 60만 원씩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 인상, 올해부터 120만 원씩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농어민 수당을 120만 원 이상 지급하거나 계획을 확정 발표한 곳은 화순군이 유일하다.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가구당 60만 원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시·군 자체 예산을 추가 투

입해 120만 원으로 인상한 곳은 화순이 처음이다.

지급액 인상에 따라 화순 지역 농어민은 전남 다른 시·군과 비교해 2배, 전국 최대 금액의 농어민 수당을 받는다.

화순군은 2022년 본예산에 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54억 원을 증액해 농어민 수당 예산 108억 원을 편성했다.

화순군의 농어민 수당 120만 지급 결정에 구충곤 군수의 의지와 추진력이 크게 작용했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해 2월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급액을 12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 꾸준히 인상 노력을 해왔다.

당시 구 군수는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인상에 대해 추가는 의외라고 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다.

농어민 수당 120만 원 지급은 민선 7기 공약으로 2019년 12월 처음으로 7430가구에 30만 원(3개월분)씩, 총 22억 2,9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2020년 전남도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시장군수협의회와의 ‘전체 시·군 동일 금액(연 60만 원) 지급’ 결정 등에 따라 화순군도 연 60만 원을 지급해왔다.

지난해에는 전체 농가에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8억6,27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구충곤 군수는 “수당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군민들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의 국가 정책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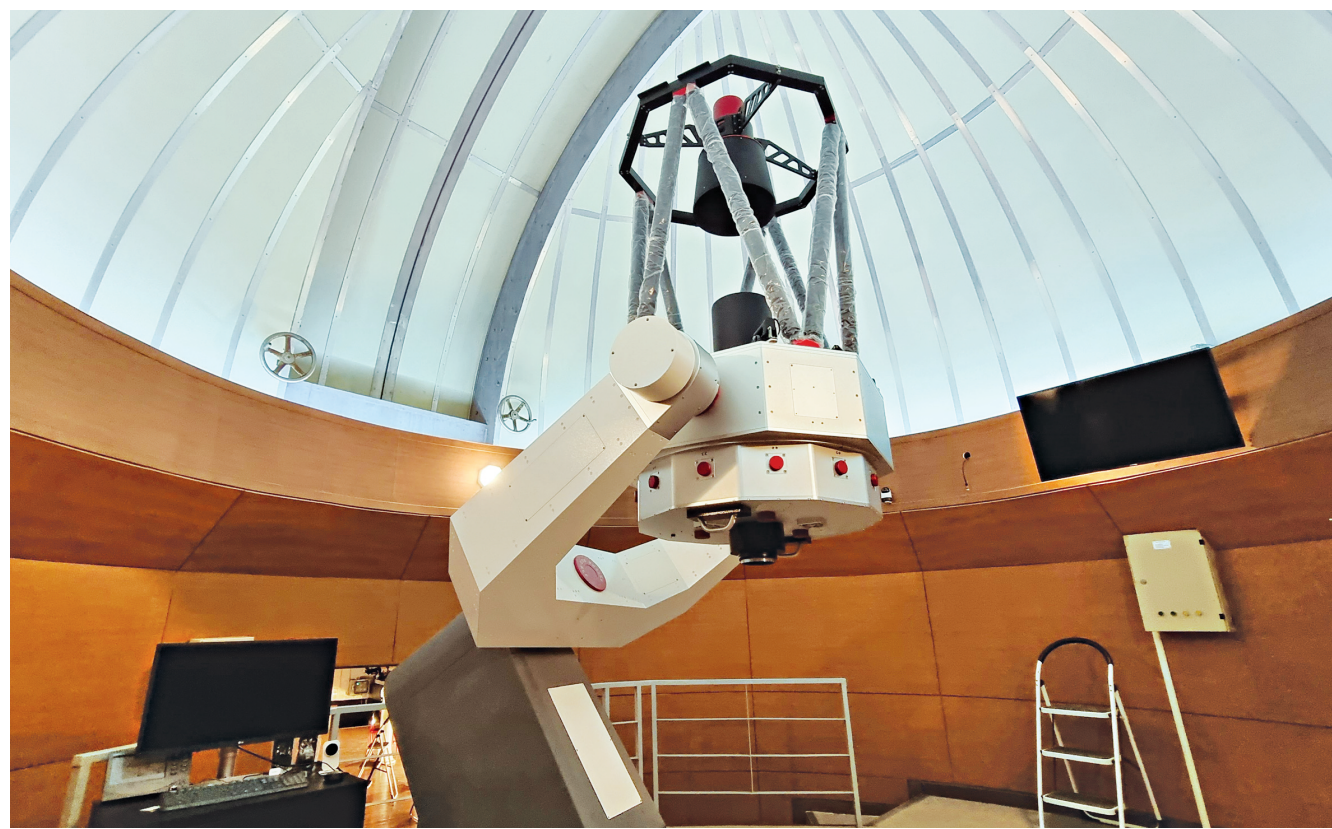
영광 한빛원전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김성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대한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역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대위는 ▲임시저장 운영기간, 운영총량, 핵연료 관련 용어 등의 법제화 ▲관리시설 입지 대상지역에 원전소재 지자체 배제 ▲임시보관에 대한 지역 자율 결정권 및 거부권 보장 ▲원전 소재 지역과 관련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논의는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을 명시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하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역공론화 실행기구를 구성 추진 ▲신설 행정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역의 참여권 보장 등 6개 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영광군 지역민들의 지역자율권과 지역공론화에서 결정될 수 없다면 특별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장흥정남진천문과학관 800mmRC반사망원경

/장흥군 제공

정남진천문과학관, 800mm 반사망원경 도입

전남 최대...국제우주정거장 관측·외계행성 탐사 가능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에 전남에서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천체망원경 시스템(800mm RC)이 최근 설치됐다.

정남진천문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과학관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돼 ‘정남진천문과학관 천체망원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천체망원경은 구경

800mm의 리치-크레티앙식 주망원경과 구경 600mm 나스미식 반사망원경 외 보조 망원경 5대다.

일반적으로 천체망원경은 구경이 커질수록 빛을 모으는 집광력이 좋아진다.

구경 800mm 반사망원경은 사람 눈의 약 1만3,000배, 기존 주망원경(600mm)보다 2배의 집광력을 가져 평소에도 어두워서 보

지 못한 성운, 성단 등의 천체를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다.

또한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애플솔트 엔코더 장착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을 관측하고 인공지능 음성 인식 및 원격시 시스템을 활용한 대학원기설과의 협업으로 광 공해 연구, 태양계 밖 외계행성 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이옥현 기자

“생태도시 철학·비전 실현 미래 담양천년 만들 것”

2022 새해설계

최형식 담양군수



“올해는 처음 재임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생태도시 철학과 비전을 더욱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생태와 정원, 인문학,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담양다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래 담양천년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담양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 핵심기반 강화 ▲지역경제활성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관광도시 실현 ▲자연과 정원이 하나되는 생태정원 도시 ▲주민자치와 인문교육도시 실현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 수요 통계 예측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전거도시 토대마련과 생활체육시스템 확충 등 보편적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회의소 출범 등 자치농정 시스템 강화와 스마트팜 등 혁신기술 도입, 축산총량제 강화와 등급제 시행, 전남 지역성장 전략사업인 딸기 품종 개발, 프리미엄 벼품종 품종 보호출원 등 변화하는 농정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이어 “행정절차부터 난개발을 방지해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담양다움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과 기후변화에 강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 설계준거기준강화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도시재생 특화모델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의 핵심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과 담양시장을 주된 생태 관광축과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 등 고용 안정망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양학역사박물관 평화에솔공원 등을 추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담양예술창고와 해동문화예술촌, 담양예술구 등 삼각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복합전시발전과 담양국제예술 향유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담양식그린뉴딜로 탄소감축을 실천하고 다양한 숲을 통해 생활권 내 녹색공간을 확대시켜나감에 기후변화 대응사업인 대나무 수종개선과 모죽조경산업 개발, 국립한국정원 문화원 건립 본격추진, 사군자정원등으로 정원문화 산실로도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장성장학회, 3년 연속 기탁금 1억 달성

(재)장성장학회의 장학금 기탁액이 3년 연속 1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억 3,000여만 원을 적립해 재단 설립 이래 최고액을 경신했다.

9일 (재)장성장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학금 기탁자는 총 78명이다. 기탁자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쾌척한 장성은 변동

희 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고향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싶어 장학금을 마련했다.

(재)장성장학회는 올해 창의융합교육과 건립지원금 3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교육경비로 출연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나주 금천면 주민자치회, 이웃돕기 성금

나주시 금천면 주민자치회(위원장 김두성)가 최근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랑을 온도를 높였다.

김두성 위원장은 금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은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후원금은 2022년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과 함께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구 및 생계유기 가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흥 사자산 골프동우회, 150만원 기탁

장흥군 안양 사자산 골프동우회(회장 김석중)가 최근 안양면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

안양 사자산 골프동우회는 작년도에도 1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김석중 동우회장은 “지난 1년간 회원들이 버디를 기록한 숫자만큼 1만원씩 기부해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 나눔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담양, 관내 병원과 치매조기검진 MOU

담양군이 최근 치매조기검진 사업 수행을 위해 담양 관내 담양사랑병원, 창평우리병원, 인내요양병원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 악화를 막고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1년에 1회 무료로 담양군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지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치매선별검사결과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소견을 보이는 환자는 협약병원에서 3차 정밀감별검사를 진행한다.

/담양=정일남 기자